

광주·전남 문 닫았던 체육시설 다시 열린다

월드컵경기장·진월국제테니스장 등
광주 11개 실외 공공시설 우선 개방
전남 442곳 조만간 개방 일정 발표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광주·전남지역 실외 공공체육시설들이 문을 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 방역)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5일 광주시·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에 따라 지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교적 전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 공공체육시설물에 한해 우선 개방이 이뤄진다. 실외 공공체육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큰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당분간 계속 휴관한다.
향후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변동 등에 따라 체육시설 개방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광주에서는 월드컵주경기장, 진월국제테니스장, 승마장, 전천후테니스장, 중흥정구장, 국공장, 국제야구장, 광주축구센터, 보라매축구공원, 수완인라인롤러장, 첨단대상파크골프장 등 11개 시설 등이 지난 27일부터 개방됐다.
코로나19 소멸 시점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던 전남종합체육관, 전남사이클경기장 등 2곳은 정

상화된다.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442곳의 실외체육시설은 조만간 개방 일정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준 광주시체육회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동호인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실내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개방하는 시점까지 체육회에서 제작한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활용해 건강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도 6일 야외시설인 염주파크골프장과 시각축구장 개방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6일 염주파크골프장, 덕흥동 시각축구장 등 감

염 위험이 적은 야외 시설을 우선 개방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성격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최종적으로 18일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개장에 맞춰 모든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개방되는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은 ▲운동기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 확보 ▲체육시설 내 음식물 반입·섭취 금지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 이용금지 ▲예약제 운영 시설의 경우 이용자 명단 작성·관리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호흡기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해남군, 전남도 스포츠마케팅 최우수군 선정

동계전환 연인원 2만8000명 유치
제2스포츠타운 2023년 조성 추진

해남군이 전남도 주관 스포츠마케팅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해남군은 전남도의 전지훈련 유치 평가에서 22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군에 뽑혀 시상금으로 경기장 보수시설비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하계와 지난 동계 전지훈련 기간 동안 해남군은 14개 종목, 2994명, 연인원 2만8000여명의 선수단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지훈련팀 일정 취소와 선수단 조기 철수 등이 이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은 우슬체육공원을 비롯해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축구 전용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우슬체육관, 수영장, 트레이닝센터, 육상실내경기장, 테니스장, 소프트테니스장, 펜싱체육관 등 종목별 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등 스포츠마케팅 기반 확보에 전력을 하고 있다.
해남군 체육시설들은 우슬경기장을 중심으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집약돼 있어 선수들은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기초체력훈련은 물론 경기까지 치를 수 있어 전국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훈련시설로 꼽히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 하계 전지훈련을 비롯해 사계절 스포츠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여름철 전지훈련 기간 동안 10종목 연인원 3만5000여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우슬체육공원.

〈해남군 제공〉

매길로이·존슨 vs 파울러·울프 17일 자선 스킨스 골프 대결

세계남자골프 랭킹 1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더스틴 존슨(미국)과 팀을 이뤄 리키 파울러, 매슈 울프(이상 미국)와 대결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의 세미놀 골프클럽에서 300만달러(약 36억7000만원)를 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선 스킨스 골프 경기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경기는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골프용품 업체 테일러메이드가 타이틀 스폰서로 나섰다. 미국 NBC와 골프 채널, 스카이 스포츠 등이 중계한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필 미켈슨(이상 미국)도 자선 경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대회 장소와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매길로이가 출전하는 스킨스 게임이 6월 PGA 투어 정규리그 재개에 앞서 골프 팬들의 감동을 풀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라운드만 마치고 중단된 플레이 어스 챔피언십 이후 처음 경기에 나서는 매길로이는 '장타자' 존슨과 호흡을 맞춘다.
이들을 상대하는 파울러와 울프는 오클라호마 주립대 동문이다.
이 대회에 걸린 상금과 함께 파머스 인슈어런스가 100만달러 기부를 약속했으며, PGA 투어는 경기 도중 문자로 기부금을 받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아찔한 암벽 등반 훈련

스포츠 클라이밍 올림픽 대표를 노리는 호주의 한 선수가 4일 시드니 블루 마운틴의 게이트웨이 크래그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진서 변함없이 '넘버원' 5월 바둑랭킹 ...2위 박정환

신진서 9단이 한국 바둑계에서 1인자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신진서는 지난 4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5월 바둑랭킹에서 1만122점을 기록, 랭킹 2위인 박정환(9967점) 9단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를 지켰다.
신진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상당수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달 소말 코사놀 최고기사 결정전에서 1승을 보태는 데 그쳤지만, 박정환 역시 포인트를 쌓을 대국이 많지 않았다.
랭킹 3~7위는 신민준·변상일·김지석·이동훈·강동운 9단이 지난달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다.
지난달 제21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에서 우승한 이지현 9단은 한 계단 오른 8위가 됐고, 안성준 9단이 9위, 박영훈 9단이 10위에 랭크됐다.
100위 이내 기사 중에서는 김동희 초단이 30계단을 뛰어올라 96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희는 지난달 LG배 국내선발전 준결승까지 진출하며 랭킹점수 100점을 벌였다.
LG배를 통해 세계대회 첫 본선에 오른 김상현 2단은 22계단 오른 54위가 됐고, 백찬희 3단은 29계단 상승한 74위에 올랐다.
여자기사 중에서는 최정 9단이 세 계단 오르며 19위를 차지했으나 오유진 7단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연합뉴스

정해원 전 전남 드래곤즈 코치 간암 투병 끝 별세

1980~90년대 프로 축구 K리그와 국가대표팀에서 공격수로 맹활약한 정해원 전 전남 드래곤즈 코치가 간암 투병 끝에 1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61세.
1959년생으로 안양공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고인은 1983년 프로축구 개막과 함께 대우 로얄즈의 공격수로 맹활약하면서 1986년 득점왕(19경기 10골)을 차지했고, 1987년에는 MVP로 뽑히면서 전성기를 보냈다.
정 전 코치는 1983~1991년 9시즌 동안 154경기에서 34골 11도움을 기록한 뒤 현역에서 은퇴했다. 특히 프로 데뷔부터 은퇴할 때까지 대우 로얄즈(현 부산 아이파크)에서 뛴 '레전드 원클럽맨'이었다.
고인은 K리그 무대에서 많은 기록을 남겼다.
1983년 5월 22일 국민은행과 경기에서는 이태호의 코너킥을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K리그 1호 코너킥 득점'의 주인공으로 남았다. 1986년에는 2경기 연속 헤트릭도 작성했다.
국가대표팀 경력도 화려했다.
연세대 소속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던 정 전 코치는 1980년 9월 쿠웨이트에서 열린 북한과 아시아컵 준결승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35분 헤딩 동점 골에 이어 후반 44분 역전 결승 골까지 터트리며 2-1 역전승을 이끌어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무대에는 나서지 못했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출전한 것을 마지막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그의 A매치 기록은 58경기 21골이었다.
현역에서 은퇴한 고인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 10월 전남 드래곤즈 수석코치를 맡아 K리그 무대로 돌아왔다. 정해원 축구교실을 운영했고 2008년부터 인천 유나이티드 스카우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직전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한 고 정해원.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LOTTE CINEMA | 중창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마이 스파이, 라라랜드
3관	마이 스파이, 프리즌 이스케이프, 헌티드 파크
4관	마이 스파이,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 나의 청춘은 너의 것
5관	마이 스파이, 호텔 레이크
9관	저 산 너머, 레이니 데이 인 뉴욕
7관 씨네커를	1917, 나의 청춘은 너의 것, 손더쉽 더 무비: 꼬마 외계인 룰라,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백악기 공룡대백과
8관 씨네커를	나의 청춘은 너의 것, 리벤지, 프리즌 이스케이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II - 봄의 세레나데
Spring of Serenade
2020. 5.12.(화)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11시 음악산책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
5.29.(수) AM 11:00
GAC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 문화 예술회관 소극장